

전남, 경관직불금 내달 15일까지 접수

경관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대상

전남도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맺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관작물은 메밀, 유채, 자운영, 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고, 준경관작물은 밀과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준경관 조지작물은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이나 목초를 말한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고,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 준경관조지작물은 ha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 호 기자

구정에 아동·청소년 목소리 담는다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 구성…모니터링·제안 활동



서구가 지난 12일 서구청 들불관에서 ‘제10기 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초등학교생·중·고등학교생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생활환경을 청소년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작한서구’ 구정 사업 모니터링 ▲솔로몬파크 법적 제형 ▲정

책 토론 및 아동권리 홍보 ▲모의국회 제형 ▲정책 제안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맨발로, 천원국시, 착한가게, 물품공유센터, 자원순환가게, 탄소중립거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서포터즈 10명이 팀별 멘토로 참여하면서 정책이해를 돕는 교육과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조선주 기자

“오래된 주방 깨끗하게 만들어드려요”

광산구, 노후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소 모집

광산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후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75만 원 한도의 주방 청소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환기시설, 화구, 냉장고 등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동기 기자

북구, 청년 ‘작은결혼식’ 참여자 모집

30일까지 중위소득 130% 이하 관내 청년부부 3쌍



북구는 저소득 청년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는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망설이는 (예비)청년 부부에게 웨딩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소가 북구로 중위소득이

13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3쌍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거쳐 5월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웨딩홀 대관 비용과 예복 대여,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결혼식 전반 비용을 지원한다.

북구는 지난해까지 합동 결혼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별 결혼식으로 추진한다. 청년 부부가 원하는 날짜를 우선으로 오는 9~10월 중 문흥동 까사디루체 웨딩홀에서 행사를 연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부부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세월호 참사 11년, 여전히 멈춘 팽목항

추모객들 “속절없다는 말 밖에”

이어진 추모 발걸음…“새 정부, 진상규명 새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등대 주변에서 추모객들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동거차도 주변 해역을 가리키고 있다.

생자 304명 영정사진이 걸린 추모관에서 고개를 숙였다.

방명록에는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를 비는 글귀를 적으면서 참사의 아픔을 기렸다.

팽목항이 11년 전 참사 희생자와 가족 사이 마지막 이별 장소였다는 흔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방파제 바로 옆에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더이상 추모객들만 찾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

점점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면서 11년 전 질게 드리웠던 비탄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다.

때문에 이날도 팽목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맘표를 쉽게 잊지 못했다.

‘속절없다’거나 ‘무상하다’ 추모

광주시교육청,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개최

오늘 목포신항만…18일까지 ‘계기교육 주간’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세월호 선체가 있는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추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념식은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 특히 250명의 단원고 학생과 11명의 인솔 교사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념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최승복

부교육감, 고인자 정책국장,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추모사 낭독, 헌화, 노란 리본 달기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추념식을 시작으로 14~18일을 ‘세월호 참사 11주기 계기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노란 리본 달기 ▲세월호 11주기 현수막 및 추모 문구 게시 ▲안전한 교육 실천 다짐 선언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세월호 바람개비 설치 등을 진행한다.

16일에는 본청 직원들이 304명의 희생자 이름이 담긴 세월호 엽서에 ‘다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적는 ‘실천 다짐 명함 서명’ 행사를 갖는다.

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계기 교육 주간’을 세월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안전광주 만들기’ 61일간 집중안전점검

14일~6월13일 민관 합동 노후·위험시설 495곳 점검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61일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위험·기반시설 49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중 121개소는 중앙부처 위임 대상, 나머지 374개소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시설이다.

특히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현장점검과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돌입에 앞서 11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1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 및 기관별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14일 공직자 대상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시청 1층에서 진행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율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객들은 ‘세월’ 앞에 붙는 수식어들을 영겁의 그리움에 기워넣었다.

광주에서 온 정겨운(34·여)씨는 “속절없이 보내니 벌써 참사 11주다. ‘미완의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에 ‘세월’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때때로 미안하기도 하다”며 “안타까움은 11년이 지나도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희생된 학생을 뵈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두드렸다.

이상원(56)씨는 “그저 무상하다고 느끼고 말 세월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학동·화정아이파크 붕괴 등 여러 건설 사고, 이태원·오송 참사 등 반복된 재난을 막고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무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어두웠던 10년을 보낸 만큼 11주기부터는 ‘안전’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바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자 팽목바닷길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11주기에 새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다. 세월호에 대한 교육부터 안전을 다루는 전반까지 모든 게 원점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구조 공백 7시간 등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앞장서고 새로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양경찰 112상황실 직원

‘6억원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

광양경찰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직원의 기지로 퇴직금 등 6억여원을 피싱범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피해자의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경 “남편이 서울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통장을 다 들고 서울로 가고 있다. 3시 30분에 출발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기호필 경위는 지구대 순찰차 출동 지령과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수신회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수 차례 문자를 전송했다.

자신이 피싱범죄에 휘말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로 가고 있었다.

기호필 경위는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에 협조 요청했다. 간곡한 설득 끝에 A씨는 천안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기로 했고, 출동한 충남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이 A씨의 휴대폰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A씨는 “한편성 일하고 받은 퇴직금 등 6억원을 빼앗길 뻔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문자메세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순천경찰서, 행락철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 개최

순천경찰서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행락철 범죄예방 및 치안수요 대응을 위한 기능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2신고 분석 결과 및 지역축제 일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행락철 기간(3~5월) 동안 절도·성범죄·실종·교통사고 등 112신고가 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팀의 선제적 현장 진단 및 취약요소 개선 ▲이동형 CCTV 및 마을단위 당경철관 중심 순찰 강화 ▲다중중점장소에서의 시민 체험형 환경개선 설문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스마트 태그 적극 활용 ▲지역축제 교통관리 및 경비지원 계획 등 유기적 협업을 다짐했다.

/권형안 기자